

2011 새출발 하는 광주지역 가전 3사

광주상의, 제조업체 100곳 새해 자금사정 물어보니

삼성전자 '탄탄대로' 대우일렉 '중동공략' 정평캐리어 '재기발판'

대기업 '맑음' 中企 '흐림'

신묘년 새해, 광주지역 가전 3사가 새희망을 안고 새출발 한다.

삼성광주전자는 삼성전자로 사명을 바꿔 글로벌 생활가전 전략기지로 거듭나고,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엔텍합그룹이라는 새주인을 맞아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2일 광주시와 지역 가전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7조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광주 가전산업은 올해 경영안정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가이아자동차 광주공장과 함께 광주 경제의 한 축을 이뤘던 삼성광주전자는 지난 1일 삼성전자와 공식 합병,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광주사업장'으로 새출발 했다.

'삼성'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상품 위주로 재편해 '글로벌 생활가전 전략기'로 삼을 방침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저가 제품은 과감하게 해외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본격 가동된 정밀금형개발센터의 디자인과 금형 기술로 차별화된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해외법인에 지원하느라 '마더(mother) 사업장'의 역할도

삼성전자 - 로봇청소기·양문냉장고 등 프리미엄 상품 주력

대우일렉 - 이란계 엔텍합 인수완료 수출 10% 급신장 예상

정평캐리어 - 새 투자자 오택과 공조 사업영역 확대 쟁걸음

담당하게 된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이란계 엔텍합인더스트리얼그룹을 새 주인

으로 맞아 설비투자를 늘리고 신제품도 내놓을 계획이다. 엔텍합은 빠른 이달 중순에 인수대금을 납입

해 대우일렉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엔텍합은 주로 이란과 두바이를



이전 '삼성전자' 2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내 삼성광주전자의 간판이 삼성전자로 교체됐다. 1989년 설립된 삼성광주전자는 21년여만인 지난 1일 삼성전자에 흡수 합병돼 단독법인 시대를 마감하고 삼성전자의 정식 가족이 됐다.

중심으로 가전제품 제조·유통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대우일렉 인수를 통해 중동시장에서의 시장 지위를 높여나겠다는 전략이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엔텍합의 기반인 중동·아프리카지역 공략을 통해 올해 10%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평캐리어(주)는 새 투자자를 영입해 사업영역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정평캐리어는 지난해 11월 시노코파이프가 캐리어(주)를 인수해 사명을 바꾼 옛 캐리어 에어컨이다. 하지만 인수 한 달여만인 지난달 코스닥 상장사인 (주)오택을 새로운 투자자로 영입했다. 오택은 조만간 시노코파이프의 지분을 인수하고 정평캐리어의 유상증자를 위한 100억원의 자금을 대어줄 경영권을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예산에 본사를 둔 오택은 최첨단 엠블런스차량 및 냉동·냉동탑차 등 특수목적차량을 전문 제조하는 업체로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 457억원, 영업이익 35억원을 기록했다.

오택은 정평캐리어의 경영권 인수를 통해 방남방 공조사업에 본격 진출, 사업 다각화와 매출 증대를 꾀할 방침이다.

새해 1분기 광주지역 제조업체 중 대기업은 자금사정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전망됐다.

2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1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자금사정 전망지수(FBSI)'를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대기업의 FBSI는 '120'으로 전분기(100)보다 크게 호전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중소기업은 '97'로 기준치(100)보다 낮아 자금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가전 등 지역 주력업종의 매출 상승이 기대되지만,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물가 상승 등 자금 수요가 늘어난 반면, 매출채권 회수 부진, 정부 정책자금 축소, 금리 인상 등 자금회전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분석된다.

응답자 중 자금사정이 지난 분기보다 '악화된 것'(25.3%)이라는 업체가 '호전될 것'(24.0%)이라는 업체보다 많았다. 절반 가량은 '비슷할 것'(50.7%)이라고 답했다.

자금조달 시장상황은 '99'로 전 분기(97)보다는 1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 기업들이 많았다. 지역 기업들은 필요 자금을 '내부'(55.9%)나 '금융권 대출'(39.7%)로 조달할 것으로 조사됐고, 10곳 중 5곳 이상은 '여유자금을 보유'(55.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애로요인으로는 '매출채권 회수 부진'(28.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외환 변동성 확대'(21.6%), '금리 부담'(17.6%), '정부의 자금지원 축소'(16.2%), '까다로운 금융기관 대출 절차'(12.2%) 등의 순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작년 무역흑자 250억달러 역대 최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 7위의 사상 최대 규모 수출과 역대 최고의 무역흑자를 동시에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1년에는 수출 5130억달러, 수입 4880억달러로 무역흑자 25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1일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통관실적 잠정치 기준의 작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모두 2만4692억달러로 전년 대비 28.6% 늘고, 수입은 4257억달러로 31.8% 증가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규모

인 417억달러 흑자를 냈다. 앞서 기준 최고 기록은 2009년의 410억달러다. 그러나 그해 기록은 수·출입이 모두 전년도에 비해 크게 하락한 가운데 수입이 더 많은 폭으로 줄어서 생긴 불황형 흑자였다는 점에서 작년 실적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와 함께 작년 수출 기록 역시 2008년 작성된 기준 역대 최고(422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이 더 늘어난 주효 경쟁국인 이탈리아와 벨기에에 앞선 세계 7위에 랭크됨으로써 처음으로 7위권에 들었다.

연합뉴스

전남도 '특허 스타기업 육성사업' 효과 中企 고용·매출 '괄목성장'

전남도의 '특허 스타기업 육성사업'이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권과 매출, 고용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어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식재산센터가 '특허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14곳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과 매출액, 고용 증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기업이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특허출원을 바탕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특허스타기업은 특허청과 전남지식재산센터가 지난 2008년부터 도내 14개 기업을 기술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 육성하는 사업으로 이들 기업의 3년 동안 지식재산권 증가량이 161건에 달해 기업별 평균 310%의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이들 기업이 취득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생산제품의 시장 경쟁력으로 이어지면서 이들 기업의 3년간 매출액도 559억원이 늘어나는 등 기업

별도 평균 100%에 이르는 성장세를 이뤘다.

14개 기업이 신규 고용한 인력도 161명으로 매년 28% 증가했다. 예컨대 지난 2009년 전남도의 '특허 스타기업 육성 사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에스알시는 이후 모두 16건의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매출액도 2008년 5억3000만원에서 2009년 64억7000만원으로 무려 10배 이상 늘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3~4월 2개월동안 최저임금 위반사태가 빈발하는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올 최저임금 5.2% 인상

4110원 → 4320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일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기존 4110원에서 4320원으로 5.2% 인상됐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3~4월 2개월동안 최저임금 위반사태가 빈발하는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최저임금 적용 예외로는 3개월 이내 수습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의 90%,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제·단속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은 최저임금의 80%를 감액 적용할 수 있다. 또 정신·지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동거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의 종사자와 가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고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적용받지 않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500대 기업 올 채용계획 3.7% 줄어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3.7%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 500대 기업(응답 313개사) 중 채용계획을 확정된 265개사의 채용예정인원은 모두 2만4692명으로 올해 이들 기업이 새로 고용한 2만5642명보다 950명(3.7%) 적다.

응답 기업 중 59.4%인 186곳이 올해 채용계획이 있다고 밝혔고 79곳은 채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13.7%), 전기·전자(6.1%), 식음료(0.2%) 분

야의 기업이 지난해보다 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Table with columns: 로또번호, 당첨번호,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Includes a table for 2등번호 숫자 and a table for 로또번호 (제422회).

애플지식센터 사무실·연구소 분양 및 임대 <R&D특구> 정부종합청사 옆(첨단) 1·2층 복층구조 전용 32평, 총 64세대 각종 시스템 냉방방기 설치 권장업종 노무사, 관세사, 기업부설연구소, 컴퓨터개발업, 건축설계사무소, 토목설계사무소, 디자인사무실, 종합건축사무실 010-2441-1610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 (4면 광로변)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3.3㎡당 매매가 - 1,300만원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흥가능 장점 1.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2.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3.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4.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송간 5·18 광로변) 5. 상무신도심 중심 상업 빌딩지구 6. 10층 신축건물 옆 코너 H.P.011-6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 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급 매매 ▶서구 마곡동, 생산복지, 3002㎡(908평), 매매가 15억원대 총 7억 감대중컨벤션 인근, 교회 식당 창고 공장 용도다양 광산구 토지 매매 ▶광산구 양동, 계획 관리지역, 28,845㎡(8,725평), 토지 전체면적중 15,818㎡(4,784평)전용 되어있음, 건축물 637.46㎡(192.83평), 현재 쓸 매장, 적합한 용도 : 기도원 수련원 공장 창고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 가능, 매매가 협의 후 결정 ▶송학동, 계획관리지역, 2차선도로에 접, 21914㎡(6,629평) 매매가 22억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광산구 우산동, 대지 321㎡(97평) 건물 지하 1층 지상 6층 1326㎡(401평) 임대 내용 : 보증금 2억 1천 5백만원 월 7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아파트 2,300세대대인근, 대출 3억원, 매매가 12억원 ■ 판 광고물건은 전속 계약 된 물건임 ■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GG경매컨설팅(주) 대표이사 노찬구 ☎222-1907 공인중개사 010-9311-1907 [공인중개사 : 강영희 ☎(062)364-8700 H.P 010-4608-3700] ▶이파트 ▶상가주택 ▶숙박시설 ▶공장/창고